
Ⅲ. 해외보험 동향

- 미국 개인연금보험은 2018년 주요 경제지표 및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회복함
 - 시중금리 상승과 판매 관련 규제가 철회되면서 정액연금이 크게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도 소폭 성장함
 - 개인연금보험 중 지수형 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수익을 보장하면서도 투자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이 제공되는 특성 때문임
- 영국의 경우 2015년 연금자유화 이후 종신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인의 종신연금 선택 건수는 80% 감소하였고 시장 위축에 따라 8개 종신연금 판매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함
 - 보험회사들은 종신연금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연금과 정기인출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는 제한적임
- 2018년 일본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19.6%로 나타났으며, 저연령의 가입과 소액 연금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 이하의 연금보험 가입률은 연평균 13.9%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납입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의 경우 소액계약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중국의 연금보험제도는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연금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자 수는 1.1억 명으로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과세방식을 조정하고 외국자본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함

1. 미국 연금시장¹⁾

■ 2018년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주요 경제지표 및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약 300억 달러 증가하며 3년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함(〈그림 1〉 참고)

- 2018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²⁾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한 반면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함
-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정액형 연금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판매도 소폭 증가함
- 한편 연금보험 판매채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던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³⁾이 2018년 6월 21일 철회되면서 연금보험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변액연금은 2011년 이후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에는 7년 만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생존보장(Guaranteed Living Benefit, 이하 'GLB'라 함)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임

- 1990년대 이후 변액연금 판매는 주식시장 상황과 정의 관계를 보여 왔으나, 2000년대부터 금리수준에 연동하는 생존보장(GLB)이 보편화되면서 금리수준의 영향이 확대됨
 - 변액연금에 부가되는 생존보장(GLB) 옵션은 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또는 가입기간이 일정 시간 경과될 때까지 생존한 경우, 적립금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옵션임⁴⁾
- 2012년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존보장(GLB) 금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활황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판매는 감소해 왔음
- 2018년 S&P 500 지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2017년 대비 대폭 하락하였으나 생존보장(GLB) 금액이 높아지면서 변액연금 판매는 소폭 증가함

1) 미국 보험산업 이슈는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를 참고함

2)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18년 3월 22일(1.25% → 1.50%), 6월 14일(1.50% → 1.75%), 9월 27일(1.75% → 2.00%), 12월 20일(2.00 → 2.25%)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함

3) 미국 노동부가 2016년 6월 부분적으로 시행한 규정으로 고령층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상품에 대해 자문과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한 조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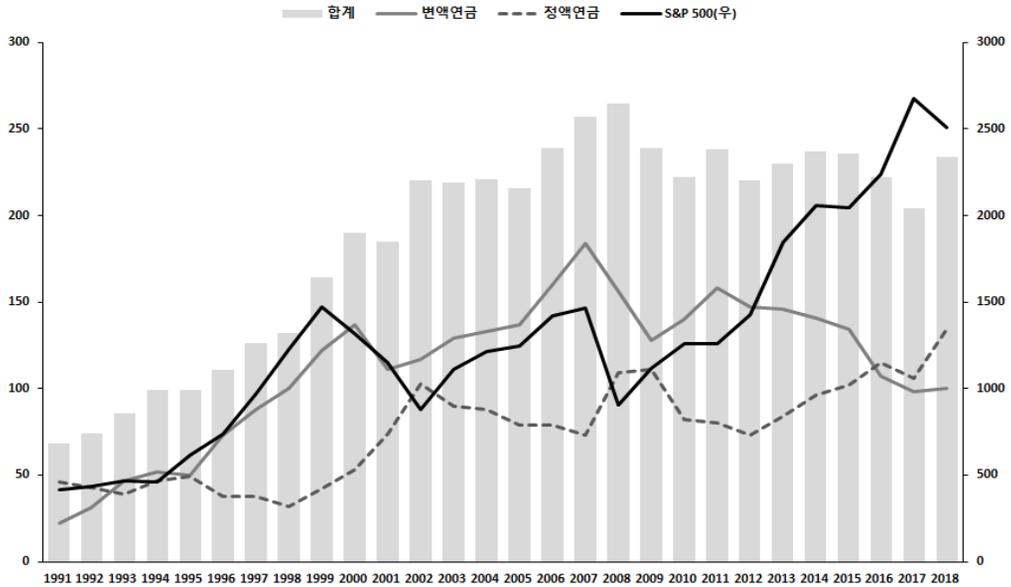
4) 권용재·장동식·서성민(2010. 6),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보험연구원

- 2018년 정액연금(Fixed Annuity) 판매는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판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7년 대비 27% 증가한 1,33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변액연금 판매를 상회함
 - 미국의 정액연금은 지수형 연금(Fixed Indexed Annuity), 이연 연금(Fixed-Rate Deferred Annuity), 즉시연금(Fixed Immediate Annuity), 장수연금(Deferred Income Annuity)⁵⁾ 등을 포함함
 -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 철회에 따라 독립 설계사(Independent Agent)의 판매 위축이 해소되면서 특히 독립 설계사 판매 비중이 높은 지수형 정액연금 판매가 크게 확대됨
 -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액형 이연 연금(Fixed-Rate Deferred Annuity)과 일시납(SPIA,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 즉시연금의 판매가 확대됨
 - 2018년 일시납 즉시연금 판매액은 2017년 대비 140만 달러 증가한 97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8년 내 최대 판매액을 기록함
 - 반면 장수연금 판매는 지수형 연금, 이연 연금, 즉시연금 등 다른 정액연금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1993년 이후 변액연금이 정액형 연금을 꾸준히 앞서 왔으나 최근 3년간 변액연금의 부진으로 정액연금의 판매가 변액연금을 상회함

5) 장수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퇴직시점에서 자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연금 지급시점을 85세 등 고연령에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 1〉 미국 개인연금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및 S&P 500 지수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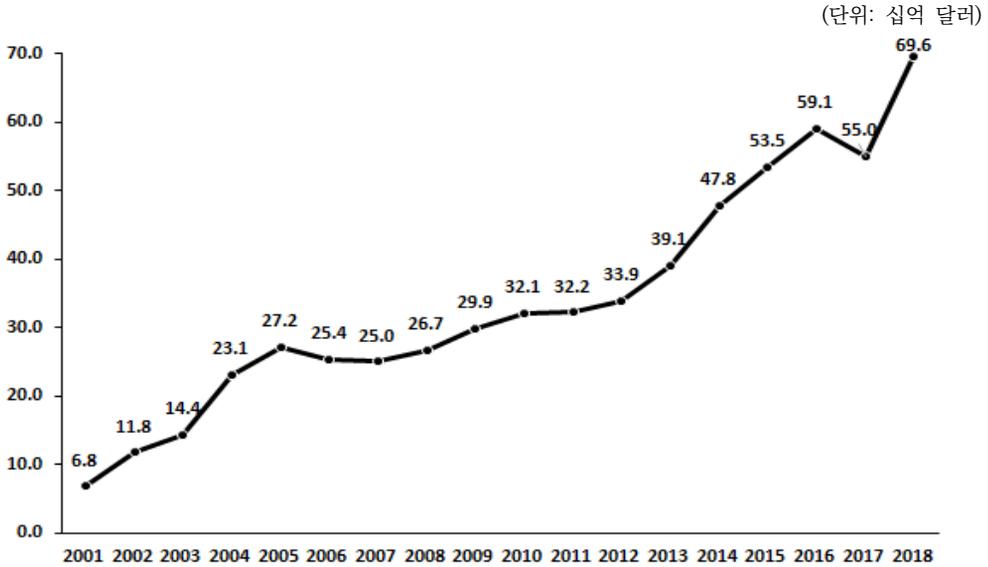


자료: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

■ 2012년 이후 정액연금의 성장을 이끌어 온 지수형 연금(Fixed Indexed Annuity, 이하 'FIA'라 함) 판매는 2018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지수형 연금(FIA) 판매는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액연금으로서의 최저 수익 보장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수익 확보라는 상품특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생존보장(GLB)에 대한 수요도 확대됨
- 지수형 연금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200% 이상 증가하며, 2018년 말 기준 개인연금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달성함
 - LIMRA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수형 연금의 시장점유율이 향후 5년 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지수형 연금 판매 증가 요인은 생존보장(GLB) 제공 및 사망 질병 보장 축소에 따른 보험료 하락 등임
- 한편 지수형 연금(FIA)의 판매채널은 독립 설계사(Independent Agent)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 철회에 따른 판매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

〈그림 2〉 미국 지수형 연금 신규보험료 추이



자료: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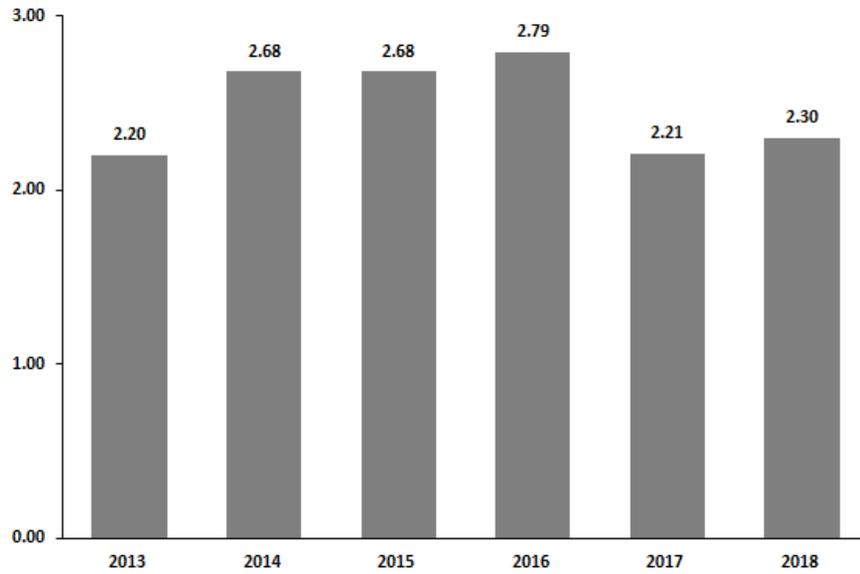
■ 한편 장수연금 판매는 저금리 기조 및 규제완화 등 장수연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이 주어졌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

○ 한편 적격장수연금(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 이하 'QLAC'라 함)은 장수연금 신규보험료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3억 3천억 달러로 최대 판매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8년 약 1억 7천억 달러를 기록함

- 적격장수연금(QLAC)은 직장 은퇴저축플랜 또는 전통적인 IRA 등 세금 유예 은퇴저축플랜에서 가입 가능함. 평균 가입 연령은 70세, 평균 연금 수령 연령은 81세로 연금 수령시기를 고연령으로 늦추면서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료가 40% 가량 저렴하고, 연금 수령기간을 단축시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그림 3〉 미국 장수연금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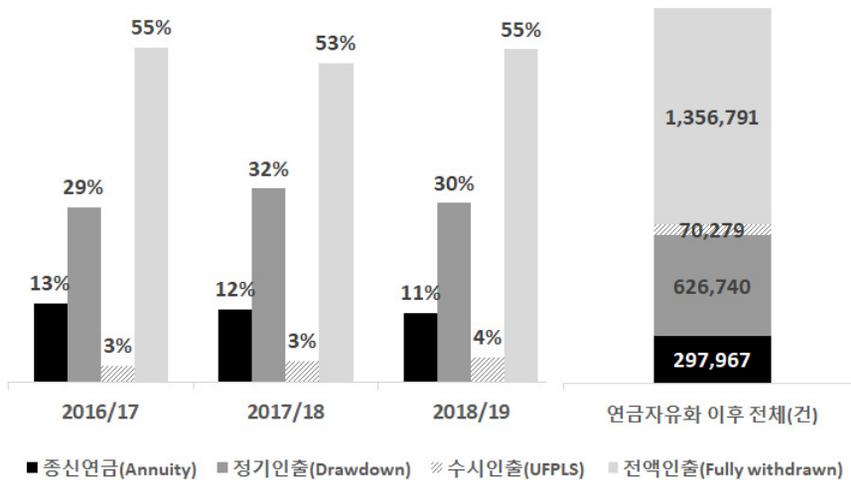
자료: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

2. 영국 연금시장

■ 영국은 2015년 4월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s Rules)를 실시하면서 퇴직연금의 종신 연금 수령의무를 폐지함

- 연금자유화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초과분인 75%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 연금자유화 이전에는 일시금 수령 시 최대 55%까지 과세하여 일시금 인출방식을 제한하였음
- 연금자유화는 퇴직연금 수령인에게 연금 상품 선택자유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연금자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음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인은 종신연금(Annuity), 정기인출(Drawdown), 수시인출(UFPLS),⁶⁾ 전액인출(Fully withdrawn, Full cash withdrawal) 중 선택하게 됨

〈그림 4〉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6) 수시인출(UFPLS: Uncrystallised Funds Pension Lump Sum)은 연금자유화 이후 도입된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하나 일시금 인출 시 마다 비과세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됨(정원석(2016. 10. 17),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KIRI 리포트』를 참고함)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인의 대부분이 인출방식을 선호하면서 종신연금 신규판매는 시장의 예상대로 크게 축소되었음

- 2015년 4월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에 대한 종신연금 선택 비중은 90%였지만, 연금 자유화 실시 후 선택 비중은 10%대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이에 반해 퇴직연금 수령인의 절반 이상이 전액인출을 선택하였고, 정기인출을 선택한 비중은 30%대였음
- 또한 연금자유화 이전 종신연금 선택 건수는 연간 35만 건이었던 반면, 2018~2019년⁷⁾ 종신연금 선택건수는 73,977건으로 80% 가량 감소함
 - 2018~2019년 연간 선택 건수는 전액인출이 3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인출 19만 건, 수시인출은 2만 건으로 집계됨
- 종신연금 수요 감소로 2018년까지 종신연금 판매회사 중 8개사가 시장에서 철수하였음
 - 최근 종신연금시장은 매우 집중되어있어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80%인 것으로 조사됨
 - 이와 대조적으로 정기인출 판매회사는 100개 이상으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0.5%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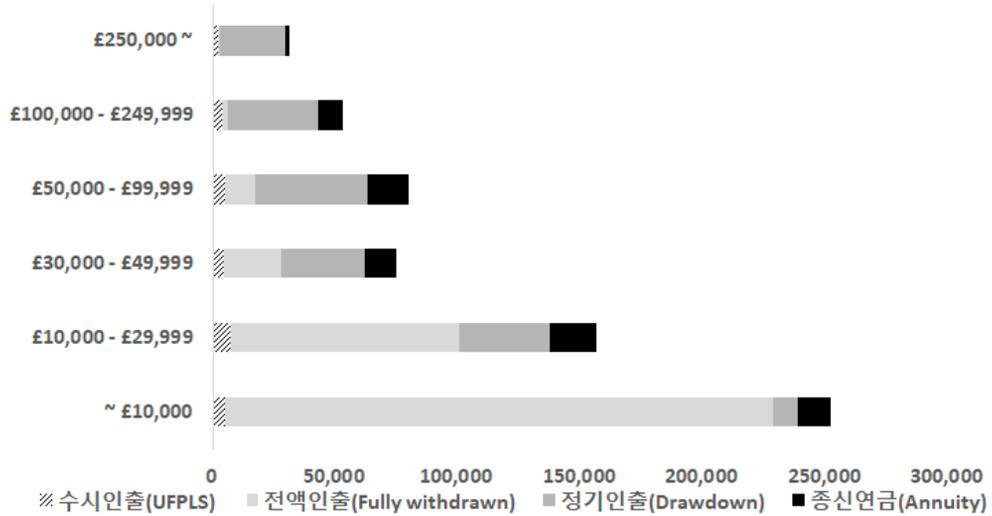
■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에서 전액인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소규모 적립금이 많고, 수령연령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수령방식의 전액인출 선호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수령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졌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적립금의 40%가 1만 파운드 미만이며 이 경우 거의 90%가 전액인출을 선택함
 - 고액인 10만 파운드 이상의 적립금 규모에서는 75%가 정기인출을 선택하였고 전액인출은 거의 선택하지 않음
- 퇴직연금 수령인의 연령별 구성은 55~64세가 70%를 차지하며 이들 연령의 대부분이 전액인출 또는 정기인출을 선택함

7) 2018년 4월~2019년 3월 기준임

〈그림 5〉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별 수령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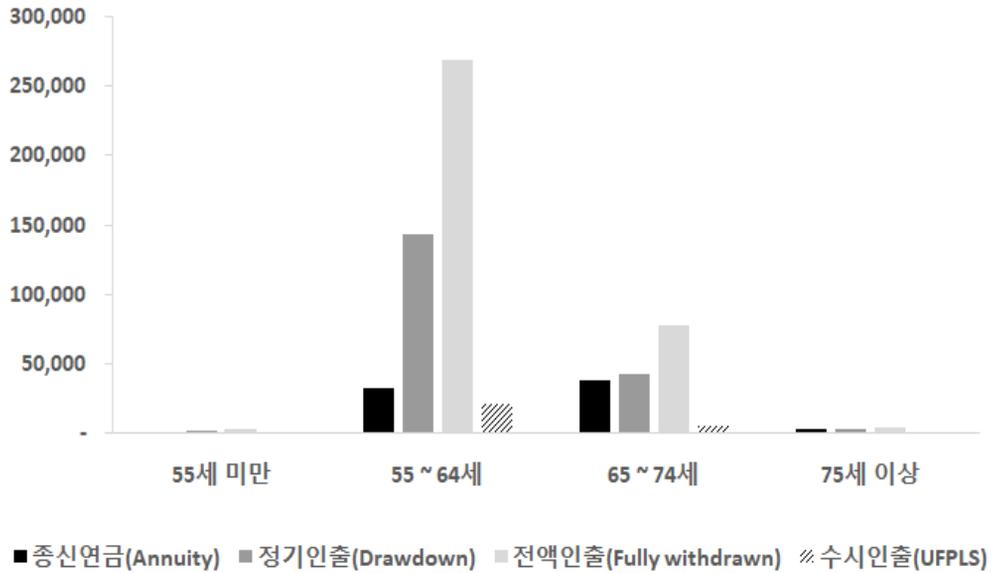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그림 6〉 퇴직연금 적립금 연령별 수령방식

(단위: 건)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 퇴직연금 수령인의 48%가 무자문서비스를 선택하여 자문서비스시장 확대 전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품 선택 시 무자문서비스 비중이 상당히 높아 종신연금 45%, 수시인출 46%, 전액인출은 6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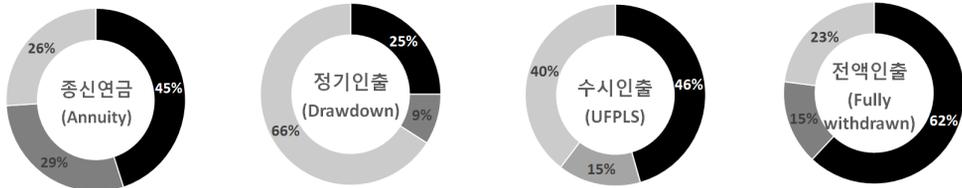
○ 정기인출은 투자 상품을 통해 수익률을 기대하는 일종의 투자위험이 있는 펀드상품으로 자문서비스 선택 비중이 가장 높은 66%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정기인출의 무자문서비스(정부의 퇴직연금안내서비스 포함)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 FCA는 해당상품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

○ 또한 자문서비스 선호율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여 적립금 규모가 자문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0만 파운드 이상일 때 70%가 자문서비스를 선택하였고, 1만 파운드 미만에서는 20%만이 자문서비스를 선택함

〈그림 7〉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별 자문유형



■ 무자문 ■ 퇴직연금안내서 ■ 자문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 연금자유화 이후 영국 종신연금시장은 축소되었으나 향후 연금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종신연금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기대됨

○ 영국 종신연금시장은 수요 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연금 상품 운용부담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이 위축되었음

- 종신연금시장 축소는 퇴직연금 수령인의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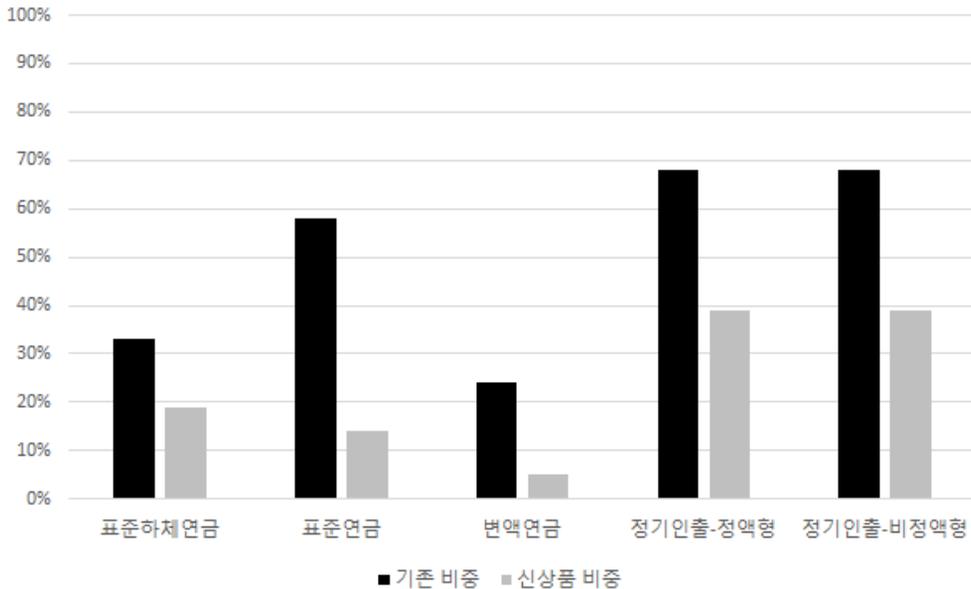
○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종신연금 기대수요로 인해 향후 금리 인상 등 공급환경이 개선된다면 시장상황의 반전 가능성이 예상됨

- 현재 종신연금 선호율은 12%로 나타났지만 2020년 퇴직연금 수령 시 종신연금 기대 선호율은 43%로 조사됨⁸⁾

■ 영국 보험회사들은 종신연금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연금과 정기인출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금 개발을 확대함⁹⁾

- 하이브리드 연금은 종신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정기인출의 소득 유연성 및 수익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전통형 연금 상품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보증형 정기인출상품(Guaranteed Drawdown Products)으로도 불리는 하이브리드 연금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정기인출 상품에 고연령에서 연금이 개시되는 장수연금(Longevity Insurance)을 결합한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연금은 Met Life, AXA, AEGON 등 대형 3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음

〈그림 8〉 연금자유화 이후 신상품 제공 현황



자료: ABI(2018), "The New Retirement Marke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8) FT ADVISER(2018. 4. 12), "State of the annuity market 3 years after Armageddon"

9) Dominic Lindley(2019), "Fixing the freedoms", An Age UK Discussion Paper

■ 그러나 하이브리드 연금은 보험료가 비싸고 복잡한 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시장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이브리드 연금은 복잡한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자문서비스 없이는 제공되지 않으며,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판매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고, 보험료도 전통형 상품에 비해 고가임
- 이러한 한계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소득의 유연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종신연금과 정기인출을 혼합하여 구매하거나 정기인출 시 인출금액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기도 함
- 한편 Solvency II 하에서 고연령에서 연금이 개시되는 장수연금(Longevity Insurance)의 자본부담이 크다는 점도 하이브리드 연금의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¹⁰⁾

10) FT ADVISER(2019. 9. 12), "Hybrid annuity launch paused due to lack of demand"

3. 일본 연금시장

가. 연금보험 기관별 가입현황

■ 일본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우체국, 농협공제조합, 전국노동공제조합, 손해보험 등에서 판매되며, 공사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의 가입 비중은 2018년 83.9%로 나타남

- 2018년 생명보험 외에 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의 연금 상품 가입 비중은 21.9%임
- 2006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 가입 비중은 68.9%에서 83.9%로 15.0%p 증가한 반면 우체국, 농협, 전국노동공제조합, 손해보험 가입 비중은 2006년 41.1%에서 2018년 17.9%로 23.2%p 감소함
 - 2007년 이후 판매 중단한 공영 우정 간이연금보험 비중이 2006년 대비 크게 감소(15.0%p)하고, 농협공제조합과 전국노동공제조합, 손해보험계 연금보험 비중이 각각 2.8%p, 2.1%p,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일본 연금보험 상품의 가구별 가입유형(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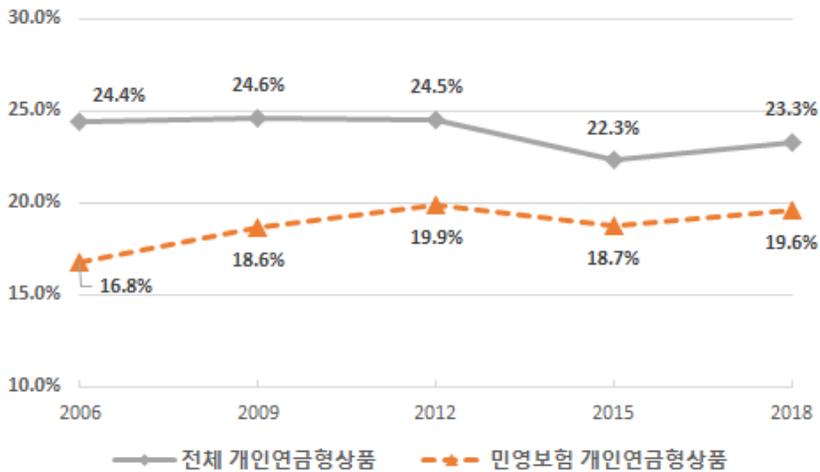
구분	민영 생명보험				공영우정 연금보험	농협공제 조합	전국노동 공제조합 ²⁾	손해보험계 연금보험	기타
	공사이율형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	민영우정 연금보험 ¹⁾	민영보험계					
2006년	63.5	6.4	-	68.9	19.9	9.4	4.8	7.0	3.0
2009년	67.9	8.0	1.9	75.5	13.4	8.4	3.5	6.2	3.4
2012년	75.4	6.3	3.3	81.2	9.9	8.3	2.7	4.4	1.7
2015년	74.9	8.6	6.3	83.9	6.2	7.2	2.9	3.3	2.3
2018년	75.2	8.0	4.4	83.9	4.9	6.6	2.7	3.7	4.0

주: 1) 2007년 10월 1일부로 일본 우정민영화에 따른 간포(간이) 생명보험이 설립됨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일본 우정국에서 파는 연금보험은 민영 생명보험으로 집계됨
 2)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제 사업으로 생명, 자동차, 화재(자연재해) 공제를 운영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전체 연금보험의 가구 가입률은 23.3%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19.6%로 나타남

○ 2006년부터 2018년 전체 연금보험 가구 가입률은 24.4%에서 23.3%로 소폭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16.8%에서 19.6%로 소폭 증가추세(2.8%p)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9〉 일본 연금보험 가구 가입률



주: 1) 전체 연금보험 상품은 민영 생명보험과 공제형 생명보험은 물론 손해보험회사에 판매하는 연금보험을 포함함

2) 민영 생명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민영우정연금보험에 해당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나. 연령·소득별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

■ 2018년 가구주 연령별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50~5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과 비교해 보면 29세 이하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29세 이하부터 39세까지의 2018년 연금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입률 21.9%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9세 이하'의 연금보험 가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연평균 13.9% 증가)

○ 40세에서 69세까지 연금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입률 21.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개인연금 가입률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 고령층의 2018년 연금보험 가입률은 10%대로 전체 가입률 21.9%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생명보험 연금보험 연령별 가구주 가입률(전체 생명보험)

(단위: %)

구분	2006	2009	2012	2015	2018	CAGR
전체	22.7	22.8	23.4	21.4	21.9	-0.3
29세 이하	3.2	3.7	3.9	8.8	15.3	13.9
30~34세	17.4	12.2	16.7	13.9	18.6	0.6
35~39세	18.8	18.6	14.9	16.6	20.0	0.5
40~44세	26.1	28.0	28.0	21.2	23.1	-1.0
45~49세	22.3	25.7	25.9	26.3	27.9	1.9
50~54세	29.5	30.4	30.3	25.8	31.9	0.7
55~59세	29.5	31.0	32.3	28.8	28.5	-0.3
60~64세	26.7	24.5	27.4	28.8	26.5	-0.1
65~69세	22.6	20.9	24.1	25.0	22.1	-0.2
70~74세	19.0	21.2	19.6	18.4	16.4	-1.2
75~79세	14.7	15.7	15.2	11.1	14.2	-0.3
80~84세	8.2	11.6	13.2	11.6	10.7	2.2
85~90세	14.3	14.7	23.8	7.0	10.5	-2.5
90세 이상	0.0	45.5	11.1	4.3	17.9	86.7

주: 전체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품은 민영 생명보험과 공제(민영화前 우체국, 농협, 전국노동공제조합)에 판매하는 연금보험임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가구 소득별 연금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이 400만 엔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 가입률은 10%대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이 4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의 경우 연금보험 가입률은 20%대로 나타남

- 세부 소득구간별로 연평균 상승률은 혼조세를 보임

○ 가구 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 가입률은 30%대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1.2%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가구 소득별 연금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200만 엔 미만	200~300만 엔 미만	300~400만 엔 미만	400~500만 엔 미만	500~600만 엔 미만	600~700만 엔 미만	700~1,000만 엔 미만	1,000만 엔 이상
2015년	10.1	14.7	15.7	17.8	22.6	27.9	27.0	35.9
2018년	10.8	13.3	18.6	21.8	22.5	22.4	27.4	37.2
CARG	2.3	-3.3	5.8	7.0	-0.1	-7.1	0.5	1.2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다.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

■ 2018년 연금보험 납입보험료는 20.1만 엔으로 2006년부터 연평균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납입 비중은 '12~18만 엔 미만'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6~12만 엔 미만'이 17.3%, '24~36만 엔 미만'이 15.1%로 나타남

○ '6만 엔 미만'의 낮은 보험료 납입 비중이 연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평균 납입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연금보험의 연간 납입보험료 비중과 평균 납입보험료

(단위: %)

구분	6만 엔 미만	6~12만 엔 미만	12~18만 엔 미만	18~24만 엔 미만	24~36만 엔 미만	36~48만 엔 미만	48~60만 엔 미만	60만 엔 이상	미응답	평균 납입 보험료 (만 엔)
2006년	11.5	16.3	27.1	9.2	16.0	4.8	5.2	4.7	5.2	21.6
2009년	11.6	16.3	23.6	10.2	12.1	4.7	1.9	3.0	16.6	18.9
2012년	15.0	16.9	23.2	8.6	12.4	4.1	2.1	3.4	14.3	19.3
2015년	12.0	16.2	25.6	8.9	13.2	3.7	2.2	2.4	15.8	17.9
2018년	16.5	17.3	24.4	9.6	15.1	4.3	2.9	5.1	4.9	20.1
CARG(%)	3.1	0.5	-0.9	0.4	-0.5	-0.9	-4.7	0.7	-0.5	-0.6

주: 2009년 이전에는 간이보험과 농협공제조합이, 2006년은 전국노동공제조합이 미포함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연금보험 가입세대의 연간 수령액은 평균 102.5만 엔으로 나타남

○ 연간 수령액 '108만 엔 이상'의 비중이 21.7%로 가장 높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36만 엔 미만'이 17.3%, '60~72만 엔 미만'이 12.9%로 나타남

○ 비교적 낮은 구간인 '36만 엔 미만', '48~60만 엔 미만'의 연간 수령액 비중은 각각 연평균 0.2%, 1.9% 증가한 반면 나머지 금액대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단위: %)

구분	36만 엔 미만	36~48만 엔 미만	48~60만 엔 미만	60~72만 엔 미만	72~84만 엔 미만	84~96만 엔 미만	96~108만 엔 미만	108만 엔 이상	미응답	평균 연간 수령액 (만 엔)
2006년	16.9	10.1	7.3	13.7	7.0	4.8	6.7	22.4	11.0	95.8
2009년	14.1	8.8	7.3	14.8	5.3	3.4	6.0	24.0	16.2	111.9
2012년	16.7	6.9	9.8	12.1	7.1	3.6	5.8	23.3	14.9	117.2
2015년	15.8	7.2	8.8	13.2	7.0	2.7	6.1	25.2	13.9	101.0
2018년	17.3	7.6	9.2	12.9	6.5	3.1	6.0	21.7	15.7	102.5
CARG(%)	0.2	-2.3	1.9	-0.5	-0.6	-3.6	-0.9	-0.3	3.0	0.6

주: 2009년 이전에는 간이보험과 농협공제조합이, 2006년은 전국노동공제조합이 미포함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라. 연금 개시연령과 수령기간

■ 2018년 연금 개시연령으로는 60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비중이 세대주 28.7%, 배우자 24.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비중이 세대주 26.7%, 배우자 23.4%로 60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66세 이상 고연령의 연금 개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65세 이하 저연령의 연금 개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세대주의 경우 66세 이상의 연금 개시 비중은 2006년부터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65세 이하의 연금 개시 비중은 연평균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배우자의 경우 66세 이상의 연금 개시 비중은 2006년부터 연평균 4.2% 증가한 반면, 65세 이하의 연금 개시 비중은 연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금보험 개시 연령

(단위: %)

구분		59세 이하	60세	61~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미응답
세대주	2006년	5.3	31.1	7.6	27.5	2.7	5.7	27.1
	2009년	5.6	30.5	5.3	25.8	3.0	7.6	26.7
	2012년	3.9	32.1	6.1	26.6	3.5	8.2	25.9
	2015년	4.0	29.0	5.9	26.1	4.6	8.0	28.8
	2018년	3.5	28.7	5.0	26.7	5.3	10.7	25.4
	CARG	-3.4	-0.7	-3.4	-0.2	5.8	5.4	-0.5
배우자	2006년	7.1	28.6	5.2	23.5	2.9	3.2	34.9
	2009년	6.1	26.3	5.3	22.7	2.5	6.5	38.5
	2012년	4.6	29.3	3.2	22.0	3.8	5.8	37.5
	2015년	5.0	26.6	5.8	22.3	4.0	6.1	37.1
	2018년	5.0	24.5	5.0	23.4	3.9	6.4	38.9
	CARG	-2.9	-1.3	-0.3	0.0	2.5	5.9	0.9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연금 수령기간으로 ‘1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대주 43.1%, 배우자 36.4%로 다른 연금 수령기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연금 수령을 ‘중신’으로 받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세대주 17.5%, 배우자는 12.7%로 ‘10년’에 이어 높게 나타남

○ 연금 수령기간을 ‘5년’ 혹은 ‘15년’으로 응답비율은 2006년 대비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연금보험 수령기간

(단위: %)

구분		5년	10년	15년	종신	기타	미응답
세대주	2006년	11.6	39.1	8.6	17.1	1.8	29.6
	2009년	9.6	38.6	7.6	16.5	2.1	29.2
	2012년	8.7	43.5	8.3	15.4	2.2	26.6
	2015년	9.4	42.7	6.0	15.5	1.3	30.8
	2018년	7.7	43.1	8.4	17.5	3.4	26.1
	CARG	-3.4	0.8	-0.2	0.2	5.4	-1.0
배우자	2006년	8.7	36.5	8.5	15.1	1.6	35.3
	2009년	7.7	39.7	7.5	12.0	1.1	37.1
	2012년	8.2	38.9	7.7	13.2	1.8	35.5
	2015년	8.5	41.5	3.8	12.2	0.9	38.1
	2018년	6.2	36.4	5.8	12.7	3.1	39.8
	CARG	-2.8	0.0	-3.1	-1.4	5.7	1.0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4. 중국 연금시장

■ 중국의 연금보험제도는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며, 가입자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및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도시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기업과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각 통합계정 및 개인계정으로 적립됨
-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은 기존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의 통합으로 출범됐으며 정부지원금, 사회단체기부금과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개인계정으로 적립됨

〈표 8〉 기본양로보험제도

구분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도입 시간	1951년 2월부터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199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2014년 2월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의 통합으로 출범
가입 대상	도시 직장 근로자(2014년 10월부터 공무원양로보험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도 가입 대상에 편입)	16세 이상 도시와 농촌 주민(비 직장 근로자)
보험료 납입방식	통합계정(부과방식): 기업이 근로자 임금의 20%를 보험료로 납입(지역마다 납입금액이 다를 수 있음) 개인계정(적립방식): 직장 근로자가 임금의 8%를 보험료로 납입	개인계정: 정부지원금, 사회단체기부금, 개인 납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방식	통합계정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 법정연금수령나이부터 수령 가능 개인계정적립금: 연금수령나이부터 수령가능, 전액수령	기초양로금 + 개인계정적립금
가입 방식	강제가입	비강제가입

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은 2009년 9월에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은 2011년 7월에 도시 비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됨

자료: 海通証券(2018. 12), “中国养老保险体系”

○ 기업연금은 한국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며, 1991년 6월부터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됨

- 기업연금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개인계정으로 적립됨
- 중국의 근로자 기업연금은 비강제가입방식으로 도입됐지만 2017년 12월부터 자동 가입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대부분 근로자 기업연금은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무원 직업연금은 2008년 3월부터 개별 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도입됐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았으며, 2014년 10월 공무원 양로보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체 정부기관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켰음

〈표 9〉 기업연금제도

구분	기업연금(직장 근로자)	직업연금(공무원)
도입 시기	1991년 6월	2008년 3월
가입대상	직장 근로자	정부기관 공무원(정부 설립 사업단체 임직원 포함)
보험료 납입방식	개인계정: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임금의 8% (최고 8%), 4%대로 납입한 보험료를 개인계정으로 적립	개인계정: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각각 임금의 8%, 4%대로 납입한 보험료를 개인계정으로 적립
보험금 지급방식	개인계정적립금을 법정연금 수령나이부터 수령 가능, 전액수령,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개인계정적립금을 법정연금 수령나이부터 수령 가능, 전액수령,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가입방식	자동가입 ¹⁾ (2017년 12월 이전까지 근로자 기업연금의 가입방식은 비강제가입이었음)	강제가입(2014년 10월 이전까지 개별 지역의 정부기관의 공무원만이 가입했음)

주: 1) 자동가입은 신입직원이 입사 시부터 기업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사후에 탈퇴가 허용되고 있음

자료: 海通証券(2018. 12), “中国养老保险体系”

- 개인연금은 보험소비자가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구입한 연금 상품을 의미함
 -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및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에 한정되고 있음¹¹⁾
 - 2018년 기준 중국에서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69개가 있음

■ 2018년 기준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기본양로보험은 가입자는 물론 기금규모에 있어서 모두 앞서고 있음¹²⁾

- 기본양로보험의 총 가입자 수는 9.43억 명이며, 누적 적립금액 기준 기금규모는 5조 8,152억 위안임
 - 기본양로보험 중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의 가입자 수는 각각 4.2억 명, 5.2억 명이며, 기금규모는 각각 5조 901억, 7,250억 위안임

11) 생명보험회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만을 판매하는데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는 개인연금 상품 외에도 기업연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12)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9. 6), “2018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 한편,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보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기금규모는 2조 9,632억 위안임
- 기업연금 중 근로자 기업연금 및 공무원 직업연금의 가입자 수는 각각 2,388만 명, 2,970만 명을 기록했으며, 기금규모는 각각 1조 4,770억 위안, 4,900억 위안임
- 개인연금의 경우 2015년 기준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자 수는 1.1억 명, 보험가입금액은 1조 6,000억 위안임

〈표 10〉 연금보험제도 운영 현황(2018년)

구분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개인연금
분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근로자)	직업연금 (공무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 상품
가입자 수	4.2억 명	5.2억 명	2,388만 명	2,970만 명	1.1억 명
기금규모 (누적금액)	5조 901억 위안	7,250억 위안	1조 4,770억 위안	4,900억 위안	보험가입금액은 1조 6,000억 위안

주: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자 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기준 집계된 수치임
 자료: 海通证券(2018. 12), “中国养老保险体系”;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9. 6), “2018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 기본양로보험은 노인부양비¹³⁾ 상승, 소득대체율¹⁴⁾ 하락, 낮은 투자수익률 등의 문제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기본양로보험 중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노년부양비는 1992년에 20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38명으로 상승함¹⁵⁾
 - UN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수가 2017년 1.5억 명에서 2030년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노년부양비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2005년에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9%로 설정했지만,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은 2005년 51%에서 2017년 46%로 하락함

13) 노년부양비는 15~60세의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할 60세 이상 인구 수를 의미함

14) 소득대체율은 퇴직자 소재 지역의 평균 월급 대비 퇴직자가 지급받는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함

15) 1992년에 근로자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17년에 근로자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

- 중국에서 강제퇴직제도¹⁶⁾가 실시되고 있으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직장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대상이 2015년까지 주로 국채 및 은행의 정기예금에 한정되어 과거 평균 연간 투자수익률은 2.3%에 불과한데, 이는 사회보장기금(8.4%) 및 근로자 기업연금(7.8%)의 투자수익률보다 더 낮음
 - 2015년 8월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수익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사회보장기금이나 기업연금의 투자수익률에 못 미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의 통합운영, 보충재원 확대 및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고 있음

- 2007년 1월 중국 정부는 성(省)¹⁷⁾급 이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을 성급 지방정부가 운영하도록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통합운영이 완성될 경우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199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됐지만 지역 간의 발전 수준 차이 때문에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음
 - 2019년 7월까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쓰촨, 칭하이, 씨장, 광둥, 푸젠, 후난 총 10개 성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통합운영이 완성됨
 - 한편, 2018년 6월 중국 정부는 중앙조절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는 성급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을 운영할 계획임
- 2017년 11월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일부 지분을 사회보장기금으로 편입하기로 함
 - 2019년 9월까지 총 67개 국영기업의 일부 지분을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자산으로 편입했으며, 시장가치 기준 편입지분은 8,601억 위안을 기록함
- 2015년 8월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위탁투자 시행, 투자대상 확대를 포함한 자산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함

16) 남자의 퇴직나이는 60세, 여자의 퇴직나이는 55세임. 단,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퇴직나이는 50세임

17) 성(省)은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이며 한국의 도에 해당됨

- 자산운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위탁운용회사는 각 성급 지방 정부가 운용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 대상은 기존의 국채와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주식, 주가지수선물, 국채선물까지 확대됨
- 2018년 기준 총 17개 성급 지방정부는 6,050억 위안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금을 위탁운용회사에게 위임했으며 전체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임

■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일련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2013년 12월 중국 정부는 기업연금 가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연금(근로자 기업연금 및 공무원 직업연금 포함)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방식(EET)을 채택한다고 발표함
- 2017년 12월 중국 정부는 근로자 기업연금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방식 변경, 납입 보험료 인하, 적립금 귀속 방법 명시, 수령방식 다양화를 포함한 ‘기업연금방법’ 개정안을 발표함
- 2018년 5월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수령 시 과세방식(EET)을 채택하는 연금 상품 판매를 허용함
- 2019년 3월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상품의 공급을 높이기 위해 영국계 생명보험회사인 Heng An Standard Life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함
 - 이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증가함